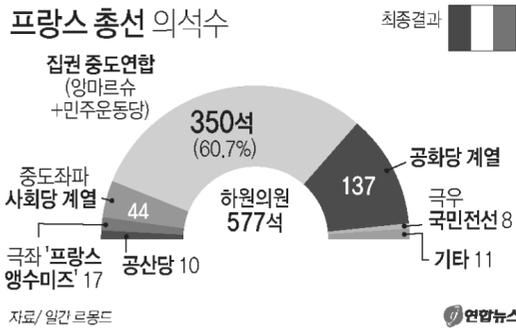


# 0석→350석...마크롱, 프랑스 선거혁명

전체 하원 577석 60% 차지  
2차 대전 이후 최대 다수당  
투표율 44%...역대 최저치  
사회당 29석 추락 존재 기로

프랑스 총선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REM·전진하는 공화국) 계열이 전체 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 최종 집계 결과, REM과 민주운동당(Modem) 연합이 전체 하원 의석 577석 가운데 350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석의 60.7%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다수당의 출현을 의미한다.

다만, 이는 지난 11일 총선 1차 투표 직

후 발표된 출구조사 예측치나 2차 투표 전 여론조사 결과에는 못미치는 결과다. 당시 REM·Modem 연합은 400~470석을

합쳐서 최대 전체 의석의 80%를 장악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표율은 44%를 밑돌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보수 공화당과 함께 프랑스 양당 체제를 이끌어온 중도좌파 사회당은 기존 의석을 250석 넘게 잃고 29석 정당으로 추락하며 존재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공화당도 200석에서 131석으로 크게 축소되며 제1야당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그쳤다.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은 자당 대선후 보였던 마린 르펜을 의회에 진출시키는 등 최소 8석을 획득하며 이전보다 의석을 늘렸으나 목표치인 15석에는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이번 총선에서는 여성이 223명 당선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동시에 인종적으로도 더 다양해지고 더 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17당태종 아내 장손황후

장손황후(長孫皇后, 601-636)는 북위 선비족 탁발부 출신으로 낙양에서 태어났다. 태종 이세민과 결혼해 뛰어난 내조로 정관성세(貞觀盛世)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녀는 613년 13세 때 16세인 이세민과 결혼했다. 당시 용과 봉황의 결합으로 널리 회자됐다. 북주와 수의 돌궐 정복에 큰 공을 세운 장손성의 여식으로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고 예의범절이 분명했다. 모친은 양주자사 고경덕의 딸로 정숙하다는 평이 자자했다. 시아버지 고조를 정성껏 모셨다. 시어머니 두씨와 매우 친밀했고 시아버지의 후처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태종이 제위에 오르자 정치적으로 내조를 다하였다.

백성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보려는 마음에 귀비와 궁녀, 신하 부인들과 함께 뽕잎을 따서 누에를 치기도 했다. 후비 소생의 자식도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애정을 기울였다. 늘 자신을 수양키 위해 책을 가까이 했다. 머리를 빚을 때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녀의 모범적 처신이 정관시대 제도와 법령이 제대로 시행되고 황실의 권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녀가 자녀의 덕행에 관한 여씨(女則)를 쓴 것도 이런 연유에서였다.

그녀는 특히 외척의 정치 개입을 극력 경계했다. 황후의 오빠 장손무기는 태종의 즉마고우로 현무문 정변의 일등공신이었다. 태종은 그를 재상으로 발탁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반대사를 표명해 오빠의 재상 행을

### 외척 정치 개입 적극 반대 원칙주의자

황궁의 궁녀들은 수나라 때부터 궁에 들어와 대부분 중년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태종에게 나이 많은 궁녀들을 고향에 돌려보내고 가족이 없는 경우 좋은 배필을 골라 혼인을 시켜달라고 청하였다. 태종이 흔쾌히 이를 수용하자 3천명이 넘는 궁녀들이 궁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치로 인해 태종은 생근으로 높이 추앙되었다.

그녀는 태종과 신하간의 돈독한 군신 관계를 위해 내조를 다했다. 간언에 관대하고 인로를 과감히 개방해 황제가 독주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했다. 한번은 태종이 화를 참지 못한 채 내실로 들어왔다. 그녀가 연유를 묻자 "위징을 죽이겠다"고 씩씩거렸다. 간관 위징이 조정회의에서 자신의 뜻을 거스리는 간언을 계속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내실로 들어가 조복을 입고 나와 황제에게 큰절을 하였다. 깜짝 놀란 태종이 이유를 묻자 "훌륭한 황제가 있어야 직언을 하는 신하가 있는 법입니다. 위징 같은 충신을 거느린 것은 나라의 복이니 폐하께 경하를 드립니다"고 답하였다. 태종이 심히 부끄러워했음은 물론이다. 그녀의 마음씀씀이가 이처럼 깊었다.

그녀는 궁의 여주인으로서 절약을 실천수범했다. 의복, 음식, 재물이 분에 넘치지 않도록 검약했다. 태자 승건의 유모가 태자가 쓸 물건을 새것으로 바꾸려하자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막았다. 장손무기는 태종 즉위 직후 이부상서에 임명되고 제국공에 봉해졌다. 재상인 우복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그녀가 반대했다. 그 후 우복야가 사망하자 장손무기를 다시 임명하려 했지만 역시 뜻을 이룰 수 없었다. 정관 시기에는 외척의 간섭과 전횡이 발을 붙이지 못했다. 어려서 자신을 구박한 이복오빠 장손안업은 동생 덕에 관직에 올랐으나 후일 모반에 가담했다.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그의 죄가 크지만 처형할 경우 자신이 사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라는 소문이 나 황실의 명예가 손상될 것을 깊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636년 고질병인 천식이 도져 병세가 심해졌다. 태자 승건은 대사면을 통해 모후의 회복을 빌자고 건의했다. 그녀는 자신 때문에 대사면을 실시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반대했다. 그녀는 임종을 앞두고 처벌을 받아 근신중인 명신 방현령을 다시 기용할 것을 간청했다. 외척을 정치에서 배제하고 자신의 장례식을 간략히 치를 것을 당부했다. 그녀는 사후 문덕(文德)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태종은 일찍이 방현령에게 "황후가 평소 나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어 내가 배우는 것이 적지 않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정말로 좋은 배우자이자 훌륭한 황후였다.

## 정치 신인·여성 발탁...친기업 정책 노동계 반발 변수

### 마크롱 총선 승리 요인과 과제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장관으로 일하다 뛰어나온 정치신인 에마누엘 마크롱(39·사진)이 정치단체 '앙마르슈'(En marche·전진)를 출범할 때까지만 해도 그가 프랑스 대선과 총선을 잇달아 제패하리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처음에는 당명을 두고 과격하고 정체성을 알 수 없는 이름이라는 조롱까지 들어야 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계의 '이단아'로 취급받던 마크롱은 거대양당의 대권 주자들을 차례차례 격파하고 집권에 성공한 데 이어 다시 한 달 만에 총선에서 과반의 압승이라는 '선거혁명'을 이뤘다.

◇중도 표방 신당, 전후 정치질서 완

전재편...전통의 공화·사회당 몰락=마크롱의 대선 승리와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의 총선 압승은 기성 정치질서를 무너뜨린 '혁명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당은 창당자인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치러진 1993년 총선에서 직전의 278석에서 56석으로 추락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존재의 갈림길에 몰리게 됐다.

◇"부패·무능 정치권 갈아엎자"...출범 초 비아냥, 경탄으로 바뀌는데 1년=공천자 중 현역의원은 전체의 5~6%로 줄인 대신, 절반을 이룬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신인들로 채웠고, 평균 연령은 46세로 지난 의회 하원의원 평균 60세보다도 14살이 적었다. 또 공

천자의 절반은 여성에 배당했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투우사, 수학자 등의 신인들은 지역구에서 오랜 터줏대감 노릇을 해온 다른 당의 현역의원들을 상대로 압승을 거두고 승리했다.

◇사상 초유의 정치실형 일단 성공...'일당제' "민주주의 위기" 우려도=마크롱이 대선과 총선 모두 압승을 이뤄냈지만, 앞길에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당장 노조들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정부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행할 시 대규모 시위로 저항한다고 선언했다. 의회 구성상 집권당에 위력적인 대항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신인들 위주로 채워진 여당이 행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北, 논에서 배타기 북한 소년 2명이 19일 평양시 포동강 주변 논에서 보트를 탄 채 노를 젓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 "3년간 北 송환 아동 48명" 유엔 공개

북한이 유엔 인권협약 기구에 지난 3년간 이웃 국가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아동이 48명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유엔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는 9월 있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인권 상황 심의를 앞두고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48명의 어린이가 송환됐다(Forty-eight children were repatriated)"고 답변서에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송된 어린이의 구체적인 규모를 북한 당국이 직접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만 북한은 탈북 어린이 문제에 대해 "일부 어린이가 동반자가 있거나 없는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갔다"면서 "이는 일부 적대 분자의 부추김에 따른 것이거나 적대세력이 꾸민 음모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최근 체제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권 비판에는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어린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 문제는 비교적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번 답변서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한 것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 경, 공매 컨설팅

### 수익형 추천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3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법원 정문앞 위치좋은 지하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룸 36개 5층건물 1층 커피전문점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 1천3백)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1중주거지역 슬로우 시티 옆 대지 3,041㎡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도시지역 1중일반주거지역 도로점 대지 1326㎡ 상가건물, 창고 적합

### 사우나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가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만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게임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1~4층 대지 364.22㎡ 건물 827.74㎡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상가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 경매 추천 물건

- ★ [다가구] 광주 동구 산수동 3층건물 토지 275.1㎡ 건물 480.58㎡ 감정가 4억4천7백
- ★ [오피스텔] 광주 동구 동명동 대지 11.26㎡ 건물 23.68㎡ 감정가 2천8백3십만 ▶ 최저가 2천
- ★ [공장] 광주 북구 양산동 식품공장, 창고용도 대지 3653㎡ 건물 3971.63㎡ 감정가 39억2천2백만 ▶ 최저가 27억4천5백
- ★ [농가시설]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문평산단인근) 대지 4683㎡ 건물 1599.8㎡ 감정가 3억2천1백만 ▶ 최저가 2억2천5백
- ★ [장례관련시설]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대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6백만 ▶ 최저가 17억 5백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